

복장 예의



김 영 옥

서울대 사범대학

〔衣生活〕

한 나라의 옷이 생겨날 때는 그 옷의 모양이 아름답든 또는 아름답지 못 하든 간에 또는 위생적이든 비위생적이든 간에 반드시 어떤 조건 하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조건이라는 것은 우선 그 나라의 기후, 풍토, 주택의 구조, 풍속 취미, 미개와 문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옥의 구조 중에서 특히 조건으로 들만한 것이 온돌과 버선, 긴 치마와 대청 마루, 처마 끝과 옷고름 이외에도 많지만 이것을 볼 때 유리알 같은 온돌에는 외서 같은 흰 버선이 실용적이라는 것이나, 아름다운 대청 마루에 타이트 스커트를 입고 서 있는 스타일 보다는 땅에 철철 끌리는 긴 치마가 풍류한 그 선미(線美)를 표현 하고 곡선으로 공중에 뻗어 올라간 치마 끝과 긴 옷고름을 팔목에 걸고 서있는 것은 얼마나 시적인 모양 이겠는가? 이와 같이 우리의 가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버선, 긴 치마, 긴 옷고름 하여튼 우리 한복의 스타일과 메자인이 생겨 난 것이다. 이것을 기후, 풍토, 습관상으로 검토해 보면 또 그 조건들에 알맞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양복은 구미 제국의 지리적, 습관적, 풍토, 취미 등

등에 따라 스타일과 옷에 대한 모든 조건이 불리워진 것이다. 그 나라에서는 습관상 옷을 24시간을 구별하여 아침에 입는 옷, 집에서 가사를 돌볼때 입는 옷, 잠자리에 들어 갈때 입는 옷, 저녁때에 입는 옷, 밤에 구경이나 초대를 받아서 갈 때 입는 옷, 거리에 나다닐 때 입는 옷 등 등 옷을 용도에 따라 모양을 달리 하고 옷감을 달리 하고 있다. 또한 이 양복을 가옥 구조와의 관계에서 살펴 보면 의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타이트 스커트가 편리 한것이요 입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활동에 적합하게 통좁은 슬랙스 타이트한 드레스 또는 이브닝 드레스 같은 것이 생겨 난 것이다. 한식 구조의 가옥에는 한복을 입고 서 있는 모양이 조화가 되고 양옥식 가옥에는 양장을 하고 서있는 것이 어울린다. 이것을 반대로 해 보았댜? 복장과 배경과의 조화는 아름답다는 것 보다는 대단히 어색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옷이라는 것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확실히 인정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요즈음 우리들의 의생활(衣生活)에 있어 양장 생활이 오히려 편리하고 경제적이고 활동적으로 된 이따 먼저 말한 것들을 내세우고만 있을 수도 없으니 여기서 남의 나라의 옷을 입는데 올바른 방법과 예의를 충분히 연구하여 실례나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생활에 적합한 스타일의 옷을 만들고 우리들이 우리네의 생활화한 복장을 하도록 하여야 된다.

옷을 입는 목적이 체온을 조절하고 외계(外界)에서 오는 여러 상해(傷害)를 막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미화(美化)하는 것도 그 중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조건의 하나이지만 요즈음 우리 나라의 일부 여성들은 옷을 입는 목적이 단지 자기를 미화 하는 것에 지나지않는 것처럼 보이는 층도 많으니 이런 태도는 극히 삼가

야 할 일이라고 생각 된다. 선진 국가의 여러 나라 여성들의 옷 차림을 살펴 볼때 현재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옷 차림 처럼 화려하고 분예 넘치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현상은 아마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리라. 그러면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비 합리적인 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원인을 생각컨데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한 마디로 옷을 왜 입느냐 하는 목적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여기서 누누히 말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올바른 의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현재로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몇 마디 말을 써서 여러 주부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고저 한다. 올바른 양장 생활을 하는 외국 부인들을 보면 집에서 입는 옷 즉, 하우스 드레스는 아주 간편한 디자인을 한 포플린 원피스이다. 디자인이 간편 하다고 해서 아무런 선도 부속품도 없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리터서 일예를 들어, 단추로 채우게 하여 다른 옷으로 갈아 입기 쉽게 하고 가사를 돌보기 쉽게 필요 이상의 가자나 단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색에 있어서 명랑 하고 화려한 색을 쓴다. 밖에 나가갈 때 입을 수 없는 그런 화려한 감을 쓴다. 이러므로써 가족 분위기를 명랑하게 하고 입은 사람 자신도 항상 마음을 아름답게 가질 수 있도록 노력 한다. 이와 반대로 우리 나라에서는 집에서는 아무것이나 외출복 현 것을 입기도 하고 어떤 기준이 없다. 이것이 경제적인 조건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기 쉬우나 그런것이 아니고 무지에서 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외출복을 필요 이상으로 입고 만들면서 하우스 드레스를 따로 못 한다는 것은 이치에 달지 않는 일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하우스 드레스라는 위치를 잘 이해하여 명랑한 옷 차림을 밖에 나갈 때보다

집에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다음은 거리에 사무적으로 나 다닐때 또는 직장에 학교에 방문에 공적인 집합장소에 나갈 때 어떤 옷 차림을 할것이나? 현재로 보면 이런 장소에 애프더눈 드레스, 파티드레스 정도의 옷들을 입고 나오니 이 또 얼마나 어색한 것인가?

우리네 생활이 단순하여 직장에 나간다는지 누구를 방문 하는 것이 최대의 옷 차림을 할 수 있는 장소 이기는 하지만 너무 도가 지나치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아침부터 애프더눈 드레스에 이브닝 백에 하이힐에 이르고 태연하게 거리를 거닐고 직장에 나와 사무를 보고 시장에 가고 하니 절대 올바른 옷 차림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직장에, 학교에는 좀더 간소한 옷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대할수 있는 그런 옷이면 되고 큼직한 백을 어깨에 메고 활발하게 출근 하는 모습은 하루의 사무를 원만히 볼 수 있는 스타일인 것이다.

타이트 스카트에 극도로 높은 하이힐을 신고 핸드백은 애프더눈 용을 들고 뺨스에 겨우 올라탄다면 이또 얼마나 웃음겨리가 되며 출근하여 하루일이 마음대로되고 또 공부가 될 것인가. 일을 하기 위하여 행동 할 때는 거기에 맞는 디자인의 비지네스복을 입음으로서 올바른 옷차림이 되는 것이다. 가슴과 어깨를 반이나 들어 내 놓은 옷은 이브닝 드레스이니 밤에 파티에 나갈 때 입는 옷이다. 이런 스타일의 드레스를 아침 부터 입고 거리를 다니는 것은 극히 삼가야 된다. 남이 밤에 입는 옷을 아침에 입고 집안에서 입는 옷을 길 거리에 입고 다니는 것은 절대로 예의를 아는 사람의 태도는 아닌 것이다. 옷이라면은 다 입는 것이 아니고 아무데서나 입는 것이 아니다. 입는 때가 있고 입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

보면 옷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집 안에서 입는 것인데 해도 넘어 가기전에 남녀가 잠옷으로 갈아 입고 마치 베복이나 입은 듯이 길 거리를 헤매고 다니니 이것 또 웃음꺼리가 아닐 수 없다. 맘보 바지에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의 인격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신사 숙녀로서의 행동을 똑 바로 하려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옷 차림을 하도록 그 방면의 서적을 많이 읽고 연구를 쌓아야 될 것이다. 어깨를 내놓고 스카트 통을 필요 이상으로 넓게 한 스타일은 이브닝 드레스에 속하는 것이니 보통 때는 입어서는 안된다. 이런 드레스는 밤의 파티의 초청에 입도록 하여야 된다. 데자인이 이브닝 드레스 보다는 약간 간소 하나 그래도 화려한 데자인을 한 것은 에프머눈 드레스나 파티 드레스이니 이런 옷을 직장에 나갈 때나 학교에 또는 남을 방문할 때도 입어서는 안된다. 파티에, 극장 음악회등에 입는 옷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 수를 놓고 비즈를 단 화려한 핸드백은 이브닝 드레스에 드는 것이니 평소복에 이런 것을 갖고 다니는 것은 자기의 무지(無知)를 스스로가 말 하는 것이니 보통 때는

이런 것을 갖고 거리를 나다니는 것이 아니다. 하이힐은 이브닝 드레스, 에프머 눈 드레스, 파티 드레스에 신는 것이고 보통때는 신는 것이 아니다. 평상복에는 큐방힐(중힐)을 신는 것이고 더구나 스릴퍼 스타일의 구두는 집안에서나(양식) 해변에서 신는 것이지 거리를 다닐 때 신는 것은 아니다. 스우브에는 타이트 스카트에 팜프스형 하이힐이 어울리고 루피스에는 플레아, 스카트에 큐방힐, 슬랙스에는 로우힐이 어울린다. 색슬린은 위의 드레스에 맞추어 입을 때이고 보통은 흰색이 무난 하다. 브라자는 더구나 검정색은 검정 드레스 때에 입는 것이다. 이와같이 양복은 한 가지 한 가지가 요구하고 있는 조건이 다르니 그것을 잘 연구 하여야 되고 옷은 어디까지나 자기 인격을 높히는 동시에 남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올바른 의생활을 하도록 하여야 된다. 그러기에는 항상 남의 옷 차림을 올바른 눈으로 비판하여 단점은 이것을 내가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고 장점은 받아드려 나의 의생활에 토대를 만들고 서적을 많이 보아 지식을 넓히고 영좌나 쇼를 많이 보아 옷에 대한 지식을 넓혀 나의 의생활을 물질 양면에서 윤곽 하게 할 것이다.

洋 裁

金 英 玉

값 2,300 圓

菊版 387 面

修 學 社 刊

▲
良
書
案
內
▼